

2014 Spring Vol.52

# 경북의사회회보



**경상북도 의사회**  
Gyeongsangbukdo Medical Association



불의의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 실종자 및 가족들에게  
위로와 명복을 빕니다.

- 경상북도의회 회원 일동 拜 -



# 경북의사회

2014 Spring Vol.52

## Contents



- 04 특별기고**  
경상북도의를사회를 위하여! · 강미경
- 05 포토뉴스**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이모저모
- 08 회무소식**  
본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성황리 개최  
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 14 회무단신**
- 17 의료기관 개원현황**
- 19 회원동정**
- 20 공지사항**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 안내  
제3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사전등록) 안내
- 22 분회 및 병원소식**
- 24 제5회 학술상·봉사상 수상자에게 듣는다**
- 26 의학 및 건강칼럼**  
세월호 사건의 충격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이광현  
(주)휴브글로벌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 · 우극현
- 32 세무소식**  
수입금액 누락과 가공경비에 대한 문제 · 백재환
- 36 노무소식**  
이것 모르면 양~되요~~ · 장인호
- 38 회원문예**  
수 필 \_ 장미공원 가는 길 · 박송훈  
울릉도에 살으리겠다 · 손경식  
UC DAVIS Medical Center 연수기 · 권흥대

발행인 정능수 편집인 김종영, 김영태 발행일 2014년 5월 12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TEL. (053)941-7785 ☎702-8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홈페이지 www.igbma.or.kr 제작처 선진애드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88길 24 TEL. (053)555-3336 FAX. (053)556-3273

### ○ 주요연중 행사일정

2014. 4. 7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4. 9. 28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마련 골프대회
2014. 4. 27	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2014. 10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2014. 5. 12	제52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2014. 10	제54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2014. 5. 17~18	제3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춘계종합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2014. 11	권역별 종합학술대회
2014. 5	2014년도 회원정기신고	2014.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4. 6. 27~29	의협 제34차 종합학술대회	2015. 1	제55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4. 7. 22~27	해외의료봉사(캄보디아 프놈펜)	2015. 2	2014년도 전체이사회
2014. 8	제53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5. 3	2014년도 회무감사
2014. 9. 20~21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2015. 3	본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 경상북도의를사회를 위하여!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면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을 서로 너무 잘 알기에,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는 안부를 묻는 일조차 꺼려지는 요즈음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모든 꽃이 한꺼번에 피워서 봄의 향기를 마음껏 맡도록 하여 참 생명력 넘치는 봄을 누리고 있었는데, 젊은 생명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큰 비극 앞에서는 봄도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현장에서 애쓰시는 의사회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북의사회 정능수 회장님 등 모든 임원진들의 적극적인 의사회 활동을 통하여 대구지원과 각별히 돈독한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의사회 관내현황(2013년도 기준)을 살펴보면 1,348개소 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약 9,800억원 진료비가 지급되었고, 이는 2010년도 대비 진료비가 매년 7~9%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구지원에서는 경북의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및 요양급여기준 등을 잘 전달하여 일선 현장에서 법령, 고시, 심사기준 등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및 본원에 적극적으로 개선 건의하는 창구역할을 충실히 하며, 경북의사회 회원님들 중에 현지조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지표연동 관리제를 통해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고, 누락 청구된 진료비를 찾아드리며, 민원 발생 시 국민과 회원과의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진료비 심사 조정 보다 사전 예방활동으로 진료에 애쓰시는 회원님들의 고충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경북의사회와는 지역적으로 다소 거리가 있지만, 마음으로 '이심전심'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건강 지킴이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구지원장 **강 미 경**

#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이모저모

본회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9일(토) 오후 6시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01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식 장면



02 이석균 윤리위원장의 의사윤리강령 낭독

03 김광만 본회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

04 정능수 본회 회장의 인사



05 주낙영 경북지사 권한대행의 축사

06 이철호 의협 부회장의 축사

07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축사

08 김희국 국회의원의 축사



01



02

- 01 제5회 학술상 및 봉사상 시상
- 02 대한의사협회장 모범회원 표창
- 03 경상북도지사 모범회원 표창
- 04 모범분회 및 단체 표창



03



04



05



06

- 05 본회 대의유공자 표창
- 06 본회 유공회원 표창
- 07 모범직원 표창
- 08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유공자 표창



07



08

일시 : 2014년 3월 29일(토) 18:00      장소 : 대구그랜드호텔



01 발언하고 있는 대의원들과 정능수 회장의 답변



02



02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의원회 의장단

03 감사 및 사회, 예결산, 회칙개정 보고



04

04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있는 보조위원들



## 본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성황리 개최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4억 8,800만 원 확정  
제5회 학술상에 양승부 교수, 봉사상에 백현우 원장

본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9일(토) 오후 6시, 대구그랜드호텔 리젠시홀에서 개최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4억 8천 8백만 원을 확정하고 제5회 학술상 및 봉사상 등을 시상하였다.

이날 총회는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부회장,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김희국 국회의원,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강보영 회장, (주)동원약품 현수환 회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최정현 부회장, 대의원회 유영구 의장 등 주요내빈과 대의원 57명(재적 80명),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은 주요내빈 소개와 더불어 개회사에서 “시도의사회장들 가운데 원격진료, 의료 영리화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투쟁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며, “현 의협 집행부는 방법상에 문제가 있으며, 조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정해진 룰에 따라야 나중에 시시비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능수 본회 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협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시작했으며, 그 어느 시도지사회 보다 경상북도지사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하나된 의협을 만들기 위해서 회원 간 불신, 불협화음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년도는 회무를 진행함에 있어 회원님들의 입장에서 회원님과 함께 하고 지역사회, 나아가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및 봉사활동을 하겠으며, 제36회 경북의사의 날 행사에는 모든 회원 및 가족들이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어 축사에서는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와 의협 이철호 부회장,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김희국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시상식에서는 제5회 학술상 및 봉사상 시상에서는 학술상에 양승부 교수(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영상의학과)가 연구발표한 ‘혈전 폐쇄 인공동정맥루에서의 포가티 발룬의 유용성’이라는 논문이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으며, 봉사상은 백현우(백현우외과의원, 영주) 회원이 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 건강진단, 관내 20개소 순회강연 및 색소폰 공연, 저소득 아동 건강관리 후원 협약체결 의료지원, 새터민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의료지원 및 후원 등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봉사상을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는 (주)동원약품(회장 현수환)에서 후원하는 금1냥이 주어졌다.

대한의사협회 표창에 심재철(경주)·방종경(성주) 회원이, 경상북도지사 표창에 황정한(상주)·백두현(고령)·김광인(안동) 회원이, 모범분회 및 단체 표창에는 문경시의사회(회장 배영철)·울진군의사회(회장 이진홍)·경상북도지사회 테니스동호회(회장 김지홍)가 수상하였으며, 본회 회무에 적극 협조해 준 대외인사와 본회 유공회원, 해외의료봉사 유공자, 모범직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이어 속개된 2부 본회의에서는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은 보조위원으로 이광원(포항), 김진용(경주), 강혁주(구미), 권준영(안동) 대의원을 임명하고 감사보고에서 박봉기 감사는 금년도 예정되어

## + 회무소식

있는 해외의료봉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줄 것과 개원회원 입회비 징수방안 마련, 회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 등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계몽·의료분쟁조정 및 적절한 대비책 강구 등 14개 중점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4억 8,800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또 대외협력이사 및 대외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고, 문상용 총무이사·장재혁 기획이사·김영태 공보이사가 새롭게 인준을 받았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안으로는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정액제 상향조정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반대 △의료발전협의회 상설화 △건강보험 의료수가 현실화 △처방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대책 △의사의 정치세력화 △불법의료행위 근절 대책을 중앙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였으며, △건강보험 초·재진 통합은 논의 끝에 부결되었다. 또 분회 처리 안건으로 △근무회원의 회비 및 분담금은 개원회원의 60%,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회원은 회비 및 기타부담금을 면제키로 하는 분회 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3월 10일 총파업 투쟁과 관련한 경과와 의협 회장과 시도지사회장간 분열, 1·2차 의정협상결과에 따른 회원 투표 등에 대해 많은 의견개진이 되었으나 3월 30일 개최되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 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 상정

#### 1.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정액제 상향조정 건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비 상한액(15,000원) 초과로 인해 진료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 및 의료기관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인부담 정액제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20,000원)하여 줄 것을 건의

#### 2.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반대 건의

정부에서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협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형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해 줄 것을 건의

#### 3. 의료발전협의회 상설화 건의

일시적인 현안 협의를 위한 의료발전협의회가 아닌 지속적으로 의료정책 수립에 관여할 수 있는 의료발전협의회 구성을 건의

#### 4. 건강보험 의료수가 현실화 건의

적정수가를 통해 적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 해 줄 것을 건의

#### 5. 처방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건의

국민건강보험법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소신있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

#### 6.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대책 건의

한의원에서 간기능검사, 초음파검사 등 불법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

#### 7. 의사의 정치세력화 건의

의사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

#### 8. 불법의료행위 근절 대책 건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 무료투석, 출장검진, 불법 입원 사례 등 불법의료행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의협 의무정책팀을 보강하여 회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

[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서 ]

- 1) 세입총액 ₩ 525,135,704원 (자 : 2013. 4. 1)
- 2) 세출총액 ₩ 525,135,704원 (지 : 2014. 3. 31)

■ 총괄표 (단위 : 원)

세입부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
회비	363,000,000	387,725,000	△24,725,000
기타수입	48,446,887	58,857,591	△10,410,704
이월금	78,553,113	78,553,113	
합계	490,000,000	525,135,704	△35,135,704

세출부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
사업비	175,000,000	170,116,100	4,883,900
회의비	19,000,000	19,277,000	△277,000
판공비	28,000,000	28,000,000	
경조비	15,000,000	21,700,000	△6,700,000
활동비	44,000,000	43,500,000	500,000
사무비	129,650,000	128,963,335	686,665
적립금	20,000,000	20,000,000	
수용비	32,700,000	33,814,371	△1,114,371
예비비	26,650,000	1,954,125	24,695,875
이월금		57,810,773	△57,810,773
합계	490,000,000	525,135,704	△35,135,704

[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서 ]

- 1) 세입총액 ₩ 488,000,000원 (자 : 2014. 4. 1)
- 2) 세출총액 ₩ 488,000,000원 (지 : 2015. 3. 31)

■ 총괄표 (단위 : 원)

세입부			
과목	2014 예산액	2013 예산액	증△감
회비	370,500,000	363,000,000	△7,500,000
기타수입	59,689,227	48,446,887	△11,242,340
이월금	57,810,773	78,553,113	20,742,340
합계	488,000,000	490,000,000	2,000,000

세출부			
과목	2014 예산액	2013 예산액	증△감
사업비	177,000,000	175,000,000	△2,000,000
회의비	19,000,000	19,000,000	
판공비	28,000,000	28,000,000	
경조비	18,000,000	15,000,000	△3,000,000
활동비	44,000,000	44,000,000	
사무비	122,066,000	129,650,000	7,584,000
적립금	20,000,000	20,000,000	
수용비	35,200,000	32,700,000	△2,500,000
예비비	24,734,000	26,650,000	1,916,000
합계	488,000,000	490,000,000	2,000,000

2013년도 회무감사 수검



지난 3월 12일(수) 오후 7시, 본회 사무처에서 2013년도 회무 및 회계 등에 대한 회무감사 수검이 있었다. 회무감사에는 본회 박봉기·하달봉·서영진 감사와 정능수 회장, 장유석 부회장, 문상웅 총무이사, 이재흠 재무이사와 박재영 사무처장이 배석하여 2013년도 의료현안 및 회무 고유사업 전반과 일반회계 세입 525,135,704원 및 세출 467,324,931원과 회관기금 적립금 386,407,510원, 의권대책 적립금 91,472,356원, 각종성금 적립금 2,507,614원, 사회봉사기금 적립금 34,108,261원, 퇴직기금 적립금 52,843,990원의 특별회계 일체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진행됐다.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후원신청 및 후원금 납부방법

- 자동이체 (1구좌 10,000원, 10구좌 이내), 일시납 등
- 입금계좌 : 농협 301-0112-2492-11 / 대구은행 504-10-129035-7 경상북도의사회

◇ 의료봉사단원 모집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회원 (☎ 053-941-7785)





## 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의협 대통합 혁신위’ 구성 결의, 대의원회 ‘원격의료 반대’ 공식 천명, 선거관리규정 개정

대한의사협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7일(일) 오전 9시부터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의협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의사사회에서 파견된 중앙대의원, 김경수 의협회장 직무대행 등 집행진, 국회 의원과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대통합 혁신위’ 구성과 선거관리규정 개정, 사업별예산안 확정, 원격의료 반대 공식 천명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을 둘러싼 집행부와 대의원회간의 심각한 갈등이 우려됐었으나 대의원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정관개정안과 사원총회 및 회원투표 근거 마련 등을 주로 한 집행부의 정관개정안은 총회 전날인 26일(토) 열린 법령 및 정관 심

의분과위원회에서 두 개정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양립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모두 총회에 상정할 경우, 당장의 실익 없이 대의원회와 집행부간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 표결 끝에 두 개정안 모두 총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이번 정총이 끝난 이후에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두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새로운 정관개정안을 마련하여 차기 총회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제조합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 총 4개 개정 사항이 담긴 정관개정안과 온라인 투표 등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규정과 의협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협 윤리위원회규정 등은 가결시켰다.

총회 본회의에서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



원 이상 벌금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회장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으며, 방상혁 기획이사·임병석 법제이사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표결을 실시해 모두 통과시켰다.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0% 감축된 고유사업 예산 97억 6,300만 원 등 각 사업별 예산안을 확정하고, 한방대책특별기금 2억 7,300만 원을 배정했다. 대의원총회 긴급동의를 통해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주도해 나갈 비상대책위원회의 회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비로 2만 원(전공의 1만 원)을 납부기로 결의하였다.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경기도의사회가 제안한 혁신위는 모든 직역과 지역을 망라한 회원들이 참여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전폭 수렴해 의협 정관의 대대적인 개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공동으로 각 직역과 지역 회원들과 함께 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성격 등을 규정하여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로 하였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 직역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정관개정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으며, 특히 시도의사회장들은 중앙대 의원을 겸직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정곤 비대위 임시위원장을 정식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부위원장으로 노만희, 이관우, 조인성, 은상용 위원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췄다.

마지막으로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원격의료 반대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결의문에서는 '의료계가 하나 같이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대의원총회 결의로 구성된 대한의사회 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가동을 전폭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본회에서 사업·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 이석균·정능수 대의원, 제1토의분과위원회에 변영우·김재왕 대의원, 제2토의분과위원회에 장유석 대의원, 법령·정관심의분과위원회에 정만진·김광만 대의원이 참석하였다.

### 본회 및 대구시의사회 중앙대의원 간담회



4월 27일(일) 개최되는 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본회와 대구시의사회 중앙대 의원은 지난 4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대구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중앙대 의원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의협 이창 감사의 감사보고를 발표하였으며, 토의사항으로 법정관 위원회 의안, 사업 및 예결산 위원회 의안, 제1토의 의안, 제2토의 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본회에서는 변영우·이석균·정만진·정능수·김광만·김재왕·장유석 대의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30일(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정협의 결과를 점검하고

후속 대응을 모색하는 강력한 투쟁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비대위에는 의협회장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채택했으며, 오는 4월 15일까지 30인 내외로 구성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구성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는 의정협의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후속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협의에서 의협 협상단이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고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 발표한 '특별회무 수시 감사 보고서'에서는 의협의 대정부 투쟁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담긴 감사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날 임총의 안건은 △투쟁과 협상에 관한 회무감사 보고의 건 △감사보고에 따른 사후대책 및 처리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정에 관한 건 등이 다루어졌다.

## 의협 임총에서 노환규 회장 불신임안 가결, 60일 이내 새로운 회장 선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4월 19일(토) 오후 5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회

장 불신임안건을 상정, 투표를 통해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 결과, 찬성 136명(76.4%),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정관상 회장 불신임 가결 기준인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찬성' 요건을 충족해 가결시켰다.

이날 임총은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변영우 대의

원회 의장의 개회사와 불신임 안건을 대표 발의한 조행식 대의원(인천)은 △명예훼손 △품위손상 △부적절한 언행으로 내부분열 야기 △투쟁과 협상의 실패에 대한 책임 △정관위반 등 5가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찬반 토론 없이 투표에 들어갔다. 현행 의협 정관은 의협회장 임기를 3년, 임기 기준일은 회장으로 선출된 해의 5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장의 결원 발생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노 회장의 임기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불신임이 결정된 4월 19일 현재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의협 상임이사회는 임총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의협회장 직무대행에 김경수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지휘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19일(토) 오후 7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한 비대위는 지난 3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당시 의협회장을 배제한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일임한 바 있다. 비대위는 지역별 및 직역별 위원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지난 4월 27일(일) 의협 비대위는 김정곤 비대위 임시위원장을 정식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부위원장으로 노만희, 이관우, 조인성, 은상용 위원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본회위원으로는 김석곤 안동시의사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본회 정능수 회장과 집행부 임원은 지난 5월 2일(금) 22시 30분, 경상북도청 강당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사

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하고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와 더불어 유가족에게는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서 장유석·조성범 부회장 지사 표창



경상북도는 지난 4월 7일(월) 오전 10시, 경산 시민회관에서 이인선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본회 정능수 회장, 김

중영 경산시의사회장, 보건의로 단체장, 정신보건관계자, 경산지역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보건의 날 및 제45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정신재활 장애우들의 신나는 사물놀이, 경산시 어르신들의 스포츠댄스, 경산시 건강마을 강사 에어로빅 등 다양한 식전행사가 열렸고, 기념식은 도민건강증진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보건의 날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암 예방, 건강체험, 치매예방, 호흡기질환예방, 고혈압 및 퇴행성관절염 예방, 아토피예방, 에이즈예방·홍보 등의 다양한 건강증진체험관을 마련됐다. 또한,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경북도내 5개 정신건강상담센터 주관으로 회원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 비누, 꽃, 제과·제빵 등의 작품도 전시됐다. 이날, 지역보건사업 우수기관표창과 더불어 본회 장유석·조성범 부회장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 제2차 해외의료봉사 준비회의 개최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해외의료봉사를 위한 준비회의를 열고 해외의료봉사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주요내

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는 오는 7월 22일(화)부터 27일(일)까지 4박 6일간, 캄보디아 왕립군의과학연구소(프놈펜)에서 진료를 펼치기로 하고, 봉사단원은 의과는 본회에서 모집하고 치과와 한의과, 약사, 간호사는 각 단체에 참가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진행하기로 하고 통역을 맡을 이주여성

2명을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현지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T셔츠 후원업체 물색과 칫솔 및 치약, 학용품 등을 섭외하기로 하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은 의과 3명, 치과·한의과 1명 등 캄보디아 현지에 맞는 주제와 연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의약품과 진료물품은 계속 섭외하기로 하고 해외의료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하였다. 캄보디아 내과 의사인 MAN KUNG(1974. 12. 1생)씨가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해 본회를 방문하였다.

##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신고센터 운영회의 개최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신고센터 운영회의가 지난 3월 25일(화) 오후 7시 30분, 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

최하고 주요경과보고와 더불어 홍보포스터 제작 및 언론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운영회의는 본회 이우석 의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토의사항으로 홍보포스터 제작은 기존 제작되어 있는 포스터를 바탕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2,000부를 제작하기로 하고 대구경북지역의 건강검진 기관과 각 지역의 동사무소와 보건소에 일제히 배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언론 홍보방안은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위해 순차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금번에는 영남일보와 대구일보에 우선 게재하기로 하였으며, 차기회의는 오는 8월 25일(월) 개최하기로 하는 등 불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동국대학교 의전원·의과대학에 장학금 전달

지난 3월 25일(화) 오후 6시 30분, 동국대학교 의전원·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생회 출범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본회 정능수 회장과 심재철 부회장을 비롯한 도향 경주시의사회장, 남경수 의전원장과 박성운 의전원·의과대학 학생대표와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본



회 정능수 회장은 경상북도의사회의 뜻을 모아 지역사회의 훌륭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동국대학교 의전원·의

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경상북도 보건단체장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 보건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3월 24일 (월) 오후 7시, 인터불고 동보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보건단체

장 간담회에는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권오홍 치과의사회장, 신임 반응석 치과의사회장, 한형국 약사회장, 고순희 간호사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새로이 선출된 반응석 치과의사회장을 축하하고 이임하는 권오홍 치과의사회장에게는 그동안 열정적으로 회무를 이끌고 의료계 발전에 힘써준데 대해 감사사를 표했다. 본회 정능수 회장은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간 개최되는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금년도에도 보건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의견을 모으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개최



경상북도는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심의를 위하여 지

난 3월 12일(수) 오전 11시, 경북도청 제3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는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과 자활지원계획(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주낙영 행정부지사와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의약계, 사회복지단체, 대학교수 등 당연직 1명과 위촉직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임기는 2014년 3월 5일부터 2016년 3월 4일까지 2년간이다.

###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발족



지난 4월 15일 (화) 오후 2시 경북도청 대강당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기조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 지방 최초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주낙영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본회 정능수 회장, 정일용 경북교육감 권한대행 등 유관기관장과 민·官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보고, 유관기관 공동협력 협약체결,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실천결의문 낭독과 함께 비정상 사례 상황극과 퍼포먼스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북도는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위원장 노석균 영남대 총장)를 발족시키고 △서민생활 정상화 △공공부문 정상화 △규제·관행 정상화 △법질서 정상화의 4개 분야를 구성하여 경상북도에서 발굴한 4대분야 20대 핵심과제, 80대 세부과제에 대한 자문과 아울러 향후 신규과제 발굴, 성과도출을 위한 자문 등을 해 나갈 계획이며, 본회 정능수 회장은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자문위원회 서민생활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게 된다.

2014년 대구시의사회 춘계 연수강좌 개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정 : 2014년 6월 21일(토), 엑스코 3층 306호</li> <li>·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4점</li> </ul>	
16:00~16:20 등 록(사회)	총무이사 서영익
16:20~16:30 인사말	회 장 김종서
Session1	
16:30 ~ 17:30	좌 장 이재태 부회장 (대구시의사회)
효과적인 경구혈당강하제 치료	조호찬 교수 (계명대대 내분비내과)
17:30 ~ 18:30	권오대 교수 (대구가톨릭의대 신경과)
개원가에서 가능한 치매 조기 진단법	
18:30~19:00 coffee break / 부스참관	
Session2	
19:00~20:00	좌 장 박성민 부회장 (대구시의사회)
놓치기 쉬운 심전도 증례	배명환 교수 (경북대학교의전원 순환기내과)
20:00~21:00	남창욱 교수 (계명대대 순환기내과)
흉통 환자의 감별 진단	

## 경상북도 건강행복 추진기획단 회의 참석



본회 정능수 회장은 지난 3월 12일(수) 오후 2시, 경북도청 대강당에서 건강행복 추진기획단 회의에 참석했다.

추진기획단은 보건 의료 종합대책 수립 및 평가, 보건정책 및 신규사업 제안·발굴, 감염성 질환관리 종합대책 수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계획 수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획·조정, 노인 자살(우울증)예방 관리,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관리 대책, 응급의료 및 진료관리 대책, 의료관광 및 의료산업 계획 지원 등의 임무를 하고 있다.

-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본회 회무 및 지역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요소식을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경북의사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재 : 제한없음(시, 수필, 의학 및 건강칼럼 등)
- 원고매수 : A4용지 2장 내외(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igbma.or.kr)의 회원마당  
→ 회보투고란에 게재(상시제출가능)
- 기타사항 :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의사회보 편집방침에 따라 취지에 맞도록 약간의 원고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3년 12월 ~ 2014년 4월)

### 포항시

**조 광 래** \_ 우리연합의원  
(791-804) 포항시 북구 두호로 25  
아이코아빌딩3층  
T. (054)242-8855 / F.242-9191

**최 상 윤** \_ 제일연합의원  
(791-850) 포항시 북구 용두산길 35 2층  
T. (054)232-7585 / F.232-7589

**양 흥 석** \_ 장성연합의원  
(791-851)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317  
T. (054)253-8300 / F.253-8301

**흥해아동병원**  
(791-946)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95  
T. (054)240-1004 / F.240-1000

### 경주시

**곽 동 윤** \_ 경주비뇨기과의원  
(780-946) 경주시 원화로 293  
성모메디컬빌딩3층  
T. (054)743-8275 / F.743-8276

### 김천시

**이 승 훈** \_ 늘편한연합의원  
(740-100) 김천시 자산로 136 201호  
T. (054)439-7585 / F.439-7586

### 안동시

**이 화 섭** \_ 불날예성형외과의원  
(760-310) 안동시 경북대로 393 경북빌딩4층  
T. (054)857-7582 / F.857-7583

**임 영 훈** \_ 서울성모마취통증의학과의원  
(760-300) 안동시 경북대로 476  
T. (054)833-0700 / F.843-0710

### 영주시

**최 동 원** \_ 대영연합의원  
(750-915) 영주시 꽃동산로 30  
T. (054)635-5961 / F.635-5991

### 영천시

**이 정 훈** \_ 이정훈속내과의원  
(770-906) 영천시 완산로 58  
T. (054)334-3113 / F.334-3103

### 상주시

**김 수 응** \_ 김수응내과의원  
(742-903) 상주시 상산로 263  
T. (054)532-9955 / F.532-9957

### 경산시

**손 혁 수** \_ 삼성연합내과의원  
(712-110) 경산시 대학로 63  
김스메디빌5층  
T. (053)816-2336 / F.816-2337

**신 병 철** \_ 삼성연합내과의원  
(712-110) 경산시 대학로 63  
김스메디빌5층  
T. (053)816-2336 / F.816-2337

**임 성 환** \_ 달팽이신경과의원  
(712-803) 경산시 중앙로 81 성찬빌딩3층  
T. (053)814-1500 / F.814-1501

### 청도군

**서 창 민** \_ 삼성연합의원  
(714-802)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93  
T. (054)373-2700 / F.372-7771

## 시·군의회 정기총회서 신입회장 선출 및 새 집행부 구성

본회 산하 각시·군의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1개 단위 의사회가 신입회장을 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 포항시의사회 신입 이우석 회장 선출



포항시의사회는 지난 2월 27일(금) 오후 6시 30분, 웨딩아인린 그랜드홀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입 이우석 회장(영동안과의원)을 선출하고 새로이 구성된 임원진을 발표하고 인준하였으며,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우석 회장은 포항시의사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경상북도의사회 의무이사를 맡고 있다.

### 경주시의회 신입 도항 회장 선출



경주시의회 제58차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이 지난 2월 18일(화) 오후 7시 30분부터 경주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고 신입회장에 도항 회원(경주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을 선출하였다.

임원개선에서는 감사에 김형일(경주성모안과의원), 감사규(동국대학교경주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회원을 선출하였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 구미시의사회 신입 전우성 회장 선출



구미시의사회는 지난 2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호텔파크비지니스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입 전우성 회장(우성비노기과의원)을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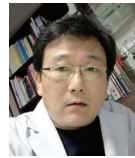
### 영주시의회 신입 노진우 회장 선출



영주시의회는 신입 노진우 회장(참사랑외과의원)을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 영천시의사회 신입 김인정 회장 선출

영천시의사회는 지난 2월 21일(금) 오후 7시, 고궁식당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입 김인정 회장(한국제통의



원)을 선출하였다. 총무이사는 전대진 회원(이내과의원)이 맡기로 하고 신입 임원진 구성은 집행부에 위임기로 하였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 문경시의사회 신입 배영철 회장 선출



문경시의사회는 지난 2월 27일(금) 오후 7시, 청록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입 배영철 회장(배영철가정의원)을 선출하였다.

부회장에는 박우진(가은중앙의원), 총무이사에 이준혁(용이비인후과의원)을 새로이 선출하고 3월 1일부터 1년간 임기가 시작됐다.

### 의성군의사회 신입 한길성 회장 선출



의성군의사회는 신입 한길성 회장(한길성내과의원)을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 영덕군의사회 신입 성상욱 회장 선출



영덕군의사회는 신입 성상욱 회장(강구성모의원)을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 성주군의사회 신입 강만수 회장 선출



성주군의사회는 신입 강만수 회장(성주효요양병원)을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 예천군의사회 신입 최영환 회장 선출



예천군의사회는 신입 최영환 회장(성심의원)을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 울릉군의사회 신입 손경식 회장 선출



울릉군의사회는 울릉군보건의료원장이 새로이 임명됨에 따라 신입 회장으로 손경식 울릉군보건의료원장이 선임되었다.

이석균 청강장학회 회장, 경산시장학회에 1천만원 기탁



청강장학회 이석균(경산, 청심사내과과유외과 의원) 회장은 지난 4월 17일(목) 경산시장학회(이사장 최영조)를 방문하여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청강장학회는 지난 1985년 이석균 원장의 선친 회갑때

다섯형제가 모은 경비를 회갑잔치를 대신해 학생들에 장학금으로 지급 하자는 선친의 제의에 따라 '삼원가족장학회'라는 이름으로 결성된 이후 장학사업과 더불어 경로당, 건강교육, 학생봉사단체 지원 등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봉사를 하기 위해 1989년 '청강장학회'로 개명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총 35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의 인재육성에 직접 힘을 쏟았으며 각종 봉사단체, 경로당 등 50여곳과 관내 학교에 컴퓨터, 도서 기증 등 학교지원사업을 펴왔으며, 청강장학회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5월 3일 경산 컨벤션웨딩에서 '청강장학회 30주년 기념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영배 교수,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최우수 구연발표상 수상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신경외과 이영배 교수는 지난 2월 23일(일) 서울에서 열린 2014년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Clinical Features of Head Injury in the 80 or more years of age(80세 이상 고령의 두부외상에 대한 분석)'이란 연제를 발표하고 최우수 구연발표상을 받았다.

임현술 교수, 보건의 날 경상북도지사 표창 수상 및 농업인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 수행



임현술 동국의대 교수는 4월 7일 보건의 날에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로부터 경상북도 지역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패를 수여 받았다. 또한 임 교수는 지난 4월 9일 서울 양재동 a센터에서 열린 2014년도 농업안전보건센터 정책공감 심포지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보로부터 '2014 신규 지정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서를 수여 받았다. '농업인 감염성 질환'에 대한 연구 주제로 본 센터에 지정되었으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농업인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한다.

단진명 교수, 긴팔뼈 수술경험 발표 美 학회 주목



구미차병원 정형외과의 단진명 교수가 최근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열린 '2014 미국 정형외과학회(AAOS)에서 근위 상완골(긴팔뼈) 골절에 대한 수술 치료 실험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상완골은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긴 뼈로, 상단의 3분의 1 부위를 근위 상완골이라 한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들이 넘어지면서 이 부위에 골절상을 많이 입는다. 단 교수는 2005~2011년 구미 및 분당차병원에서 긴팔뼈 골절환자 75명을 대상으로 삼각근 분할 도달법과 삼각 대흉근 도달법으로 치료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삼각근 분할 도달법을 이용한 잠김 압박 금속판 고정술은 치료 후 빠른 회복과 운동 범위 및 근력 회복 등 수술 경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 대구·경북 개인내과의사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14년 7월 6일(일) 08:00~14:30
- 장 소 : 호텔 인터불고 대구(만촌동) 컨벤션홀
- 연수평점 : 의협 4점 / 내과학회 평생교육평점 4점 / 대한위장내시경학회평점 1점

08:00-08:50	등록	
08:50-09:00	인사말(개회사/축사)	회 장 백효중
09:00-10:30	Session1	
강 의	09:00 ~ 09:30 위암 절대 놓치지 않기	성인경 교수 (건국대의 소화기내과)
	09:30 ~ 10:00 염증성 장질환 제대로 진단하기	김영호 교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10:00 ~ 10:30 다양한 내과 질환에서 관절염 약제의 올바른 사용	남언정 교수 (경북의대 류마티스내과)
10:30-11:00	coffee break / 부스참관	
11:00-12:00	Session2	
강 의	11:00-11:30 흡입기 완전 정복	박재석 교수 (계명대의 호흡기내과)
	11:30-12:00 어지럼증의 내과적 접근법	신동구 교수 (영남의대 순환기내과)
12:00-13:00	음악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13:00-14:30	Session3	
강 의	13:00-13:30 새로운 약제들을 이용한 당뇨병 맞춤 치료	안철우 교수 (연세의대 내분비대사내과)
	13:30-14:00 암은 정복될 수 있는가, 암 치료의 과거와 미래	박건욱 교수 (계명대의 혈액종양내과)
	14:00-14:30 IVNT (Intravenous nutritional therapy) 의 실제	김동환 원장 (녹십자의원)
14:30-	폐회사	

- 등록비
  - 정회원 : 사전등록 무료 / 현장등록 1만원
  - 타과,비회원 : 사전등록 3만원 / 현장등록 5만원
  - 내과분직의 : 사전등록 2만원 / 현장등록 4만원
  - 전공의 : 사전등록 무료 / 현장등록 1만원 (정회원은 2014년 연회비를 납부하고 사전등록을 하셔야만 등록비가 없습니다.)

- 사전등록마감일 : 7월 2일 (수) (등록마감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등록신청문의(준비사무국) : ☎ 070-7432-2352
  - FAX : 0505-115-0497
  - E-mail : union0614@gmail.com (준비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사전등록신청서를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 안내

## ❖ 치매특별등급 제도 개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제도 시행에 따라 경증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음(2014. 7월 시행 예정).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기존 장기 요양 의사소견서와는 다른 별도의 양식에 의해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내용 : 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방문 요양보호사가 치매에 특화된 일상생활의 수행 관리 등 케어 제공

## ❖ 교육대상

-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의사

## ❖ 치매요양특별등급 의사소견서 교육 대상 및 기간

### 1.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 전문의사 교육 수료 의사

- 치매요양특별등급 의사소견서는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발급 가능하나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복지부 주최 치매 전문의사 교육을 수료한 의사는 한 강의(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6교시)만 수강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2. 타과 의사

- 교육은 6시간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수해야만 평점교부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임. 금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교육은 5월 말까지 완료해야 함.

## ❖ 교육과정(총 6시간), 연수평점 6점

1교시	•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2교시	• 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 (MMSE 및 신경심리검사)
3교시	• 일상생활기능(ADL/BADL) 및 문제심리행동증상(BPSD/Depression)
4교시	• 뇌영상 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5교시	• 치매단계(GDS 및 CDR)
6교시	•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신경과 전문의는 6교시만 수강하면 이수증이 발급됨)

## ❖ 교육일정(대구·경북지역)

구 분	지 역	일 시	장 소	시 간	대 상 자
신 경 과 학 회	대 구 시	5. 24(토) 14:00~	영남대의료원 이산대강당	6시간	전체과
	신경정신의학회	대 구 시	5. 8(목) 20:00~	대구그랜드호텔 5층 프라자홀	1시간
5. 11(일) 09:00~16:00			경북대병원 응급병동 10층 대강당	6시간	전체과
안 동 시		5. 22(목) 18:00~	안동성소병원 대강당	1시간	정신건강의학과
		5. 25(일) 13:00~19:00	안동성소병원 10층 대강당 은파홀	6시간	전체과
	경 주 시	5. 28(수) 18:00~19:00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대강당	1시간	정신건강의학과

- 타 지역에서 개최하는 추가 교육일정은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 ❖ 등록(수강료) 및 문의

- 대한신경과학회 : 홈페이지(www.neuro.or.kr) 등록 ☎ 02-737-6530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 : 홈페이지(www.knpa.or.kr) 등록 ☎ 053-200-5747

# 제3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사전등록) 안내

## (춘계종합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제3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가 오는 2014년 5월 17일(토) ~ 5월 18일(일)까지 양일간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되오니 회원 및 가족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사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간소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춘계종합학술대회

- **학술대회** : 5월 17일(토) 14:30 ~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  
5월 18일(일) 09:00 ~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
-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12평점(토 6평점, 일 6평점)
- **사전등록안내**  
- 춘계종합학술대회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회원들의 임상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춘계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은  
본회 홈페이지([www.igbma.or.kr](http://www.igbma.or.kr))에서 신청

- ※ 홈페이지 등록과 더불어 등록비를 입금하셔야 사전등록 인정
- ※ 등록비 : 사전 40,000원, 현장 50,000원 / 본회 회원 기준  
회비 미납회원 100,000원, 마약류교육만 수강시 30,000원
- ※ 사전등록계좌 : 대구은행 05-3941-7781 경상북도의사회
- ※ 문의처 : 경상북도의사회 (053) 941-7785

### ::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 **친선의 밤** : 5월 17일(토) 18:30, 오운홀
- 헌악 4중주, 마술 및 국악공연

### :: 경북의학제(간소하게 진행)

- **단체경기 및 화합한마당** 행사는 취소합니다.  
(단, 시조 및 3행시, 어린이그림그리기는 당일 오전에 진행합니다.)
- **제출마감** : 5월 18일(일) 10:00까지 접수처에 제출  
※ 참석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 :: 회원 테니스 대회

- **대회일정** : 5월 17일(토) 17:00, 알천체육공원 테니스장(경주 구항동)

### [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시 전달할 물품수집 ]

- 볼펜, 학용품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 ※ 행사장 접수처 전달 또는 본회 송부

### :: 춘계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5. 17 (토)	14:00~14:20	등 록		
	14:20~14:30	개 회	경상북도의사회 나득영 학술이사	
		회장인사	경상북도의사회 정능수 회장	
	[ Session I ]	[좌장] 경상북도의사회 황석순 부의장	황석순내과의원 원장	
	1강의	2014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	경상북도 식품의약과 엄재웅 계장	
	2강의	외래에서 흔히보는 혈액검사 이상소견	계명대 내과학교실(혈액종양내과) 도영록 교수	
	3강의	천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에서 올바른 흡입기 사용법	영남의대 내과학교실(호흡기내과) 신경철 교수	
	Coffee Break			
	[ Session II ]	[좌장]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부회장	장유석외과의원 원장	
	4강의	취미로 시작한 스쿠버다이빙 10여 년	인선학문외과의원 김석곤 원장	
5강의	가장 쉬운 절세 비교세저축	국제재무공인설계사 신승환 CFP		
6강의	항혈소판제 사용과 기타 혈액순환제의 처방	경북대 의전원 내과학교실(순환기내과) 이장훈 교수		
7강의	간이식(Liver transplantation)	대구기톨릭의대 외과학교실(간이식·간담체외과) 최동락 교수		
5. 18 (일)	08:30~09:00	등 록		
	[ Session III ]	[좌장] 경상북도의사회 한형원 부회장	한형원내과의원 원장	
	1강의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폐암	시청각 교육	
	2강의	새로 나온 당뇨병 치료제와 최신지견	대구기톨릭의대 내과학교실(내분비대사내과) 이지현 교수	
	3강의	노인 근육감소증의 평가와 치료	동국대 가정의학교실 정희수 교수	
	Coffee Break			
	[ Session IV ]	[좌장] 경상북도의사회 김광인 부의장	안동제통의원 원장	
	4강의	근막통증후군과 복합부위통증후군의 치료	경북대 의전원 마취통증의학교실 전영훈 교수	
	5강의	외래에서 중추성 어지럼을 감별하는 검사	동국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정유선 교수	
	6강의	부인암의 발견 및 치료	시청각 교육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분회 및 병원소식

## 포항시의사회

### 세월호 침몰 가족들에게 구호의 손길 보내

포항시의사회(회장 이우석)는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구호의 손길을 보냈다.

포항시의사회는 희생자 가족을 위해 담요 60장(200만원 상당)을 진도군 실내체육관으로 보내 의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였다.

## 경주시의사회

### 외동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실시



경주시의사회(회장 도형)는 2013년 9월부터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외동읍 거주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의료봉사를 경주 외동 외국인 상담센터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스리랑카·이집트 등지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사랑의 손길로 진료하였다.

### 보건의 날 기념식 참석

지난 4월 7일(월) 오전 11시,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는 경주시장대행 정강수 부시장과 정석호 경주시의회 의장, 도항 회장 및 의약·위생관련 각 단체장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



서 순형석 원장(순정신과의원)·최대해 교수(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의학과)가 경주시장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도항 회장은 보건단체를 대표하여 축사를 하였다.

### 2014년 춘계야유회 남산 등반



2014년 춘계야유회가 지난 4월 19일(토) 오후 4시, 경주 남산에서 개최되었다. 황금알생오리숯불구이 주차장에 집결하여 주차장-약수골 마애여래입상-주차장의 산행코스로 등반을 한 후, 황금알생오리숯불구이에서 회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식사로 뒤풀이를 겸하였다.

김진용 기획이사의 진행으로 산행대장으로 애써준 이국형 정책이사(고운피부과의원)와 끝까지 등산에 임한 김민준 군(김진용 기획이사 자녀)에게 상품권을 증정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상품권(4명)과 접이식 자전거(김진용 기획이사)를 전달하였다.

## 구미시의사회

### 제1차 전체이사회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전우성)는 지난 3월 17(월) 오후 7시 30분, 금오산맥에서 2014



년도 제1차 전체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집행부 임원의 상견례가 있었다.

전우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임기동안 구미시의사회와 의료계 발전을 위해 화합과 소통을 통하여 다같이 새로운 미래의 의사사회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 영천시의사회

### 회원 친선 골프대회 개최



영천시의사회(회장 김인정)는 지난 3월 2일(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을 위한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 경산시의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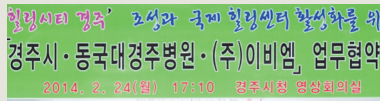
###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경산시의사회(회장 김종영)는 지난 4월 20일 예정되었던 골프대회와 등반대회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취소하고 애도를 표했다.

아울러 지난 5월 1일(목) 경북도청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회장단이 조문하였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EBM섭생영양센터 MOU체결



동국대학교경주병원(병원장 이동석)은 지난 2월 24일(월) 경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제힐링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석 병원장, 최양식 경주시장, 허봉수 (주)EBM 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역사문화관광도시에서 힐링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경주시와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우리 병원과 국내 유일의 유전체 맞춤 건강법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EBM 섭생영양센터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제힐링센터의 활성화 등 경주시민만의 차별화된 보건복지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상호협력하기 위함이다.

EBM 섭생영양센터는 30여년간의 연구결실인 생태균형의학(EBM)원리를 근간으로 20여년간 수만 명의 질병 예방은 물론 다양한 만성질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게 한 식생활 교정 힐링센터로 국제 힐링센터 내에 입주해 있다. 음식으로 몸 건강은 물론 뇌파검사를 통한 마음, 심리안정을 한 번에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다.

## 에스포항병원

### 캄보디아에서 인술 펼쳐



에스포항병원(병원장 김문철)이 지난 3월 26일부터 5일간 캄보디아 쓰레이소폰 씨

소폰교회에서 '이해와 나눔'을 실천하는 해외의료단기선교 활동을 펼쳤다.

취약계층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선교 활동 시작 전 조광연 진료부장을 단장으로 김문철 원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선교활동을 하고 돌아온 조광연 진료부장은 "직원들이 참 인술을 가슴에 새기는 의료인으로 성장한 계기였다."면서 "의료기반이 취약한 캄보디아 지역의 의료선교활동을 통해 이해와 나눔을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 '소화기내시경센터' 확장 오픈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병원장 박래경)이 소화기질환과 소화기암의 진단과 치료기능을 갖춘 소화기내시경센터를 확장하고 지난 3월 28일(금),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다. 초음파내시경, 협대역내시경은 최고의 기종과 종류를 구비하여 일반내시경으로 진단이 어려운 병변도 진단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 최초로 조기위암의 점막하박리술(ESD)을 시행하고 있어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성적을 높이고 있다.

### '소아재활치료실' 확대 강화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은 소아재활치료실을 확장하고 전문적인 소아재활 치료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아만을 위한 별도의 치료실과 발달장애 및 뇌성마비 아동들을 위한 재활시설과 장비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운동치료실 공간도 대폭 확충했으며 인지치료실을 신설했다. 소아재활치료는 소아장애 관련 질환의 뇌성마비, 발달지연, 외상성 뇌손상, 척수성 근위축증, 기타 신경학적, 정형외

과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대상이며 순천향병원은 재활의학과화회에서 인정하는 중추신경계 발달치료와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및 소아작업치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치료성적을 높이고 있다.

###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아동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과 순천향구미햇살 아이지원센터, 구미경찰서, 구미소방서, 여성긴급전화336 경북센터 등 5개 기관단체는 지난 4월 18일(금) 오후 3시, 구미경찰서 4층 금오마루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아동학대의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지원문제에 대해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가 각 기관과 유기적 관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구미경찰서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 장애인복지관서 의료봉사 펼쳐



지난 4월 19일(토),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복지관을 찾은 봉사단은 5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혈액, 골밀도, 심전도, 초음파검사,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2002년부터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복지관 의료봉사는 장애로 차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의 조기발견과 향후 적절한 건강생활이 유지되도록 상담과 치료를 지원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제5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수상자에게 듣는다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은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회원 중에서 의학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동일한 논문으로 타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 제외)으로, 봉사상은 의사단체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진료, 교육, 문화, 육영, 체육, 예술, 지역사회 개발, 사회복지사업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펴 지역 주민과 관련기관·단체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해 심사후 선정하여 본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여하였으며, 상패와 부상(각 금1냥)이 주어졌다.





## 학술상 수상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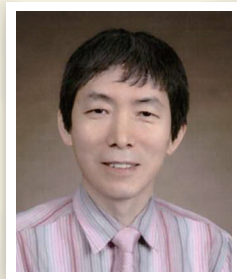
경상북도 의사사회에서 제5회 학술상을 주신 것에 대해 경북 의사사회 전체 회원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의료가 취약한 경상북도에서 많은 회원들의 진료와 더불어 연구에 보다 더 정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사의 사명은 성심을 다한 진료와 더불어 새로운 많은 연구를 통해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은 미력하지만 저의 작은 연구를 격려하고 더 정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유병율이 증가하면서 신장질환 환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장이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의 많은 환자들에게 인공 동정맥루를 통한 혈액투석의 빈도가 또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혈전으로 인해 막힌 인공 동정맥루의 장기간 개통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술 및 수술적 치료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연구는 특히 U자형 인공 동정맥루를 갖는 환자에서 협착 혹은 혈전에 의한 기능부전을 기존의 풍선카테터 외에 포가티카테터를 이용하여 감별 및 치료하는 것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러한 연구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질환 환자들의 인공 동정맥루의 장기개통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제 연구에 함께하고 많은 도움을 주신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교직원 및 혈관조영실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후원사인 동원약품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양 승 부**



## 봉사상 수상소감

먼저 경상북도 의사사회 정능수 회장님과 (주)동원약품 현수환 회장님, 봉사상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사상이든 무엇이든 다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띄게 남을 위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 일거양득인 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불평이나 불만을 크게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열심히 살다 보면 새로운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제가 타향인 영주시로 1997년에 와서 봉직 의와 개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운이 좋아 영주시에서 매년 수여하는 봉사 및 효행 부문에 2013년도 시민대상을 받았던 것이 이 봉사상을 타는데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 큰 아들과 같이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도 갈 예정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베푸는 것이 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 진정으로 봉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능수 회장님과 경상북도 의사사회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우외과의원 원장 **백 현 우**



# 세월호 사건의 충격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광 현 교수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매일 방송되는 세월호 관련 뉴스를 보고 있으면, 실종자 구출 소식은 없이, 반복되는 사망자 관련 소식과 절망하는 가족들을 접하면서, 전국민들은 안타까움과 분노,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모두가 죄인 된 기분이고 지금의 분위기로는 즐거운 일이 있어도 웃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는 의사들도 개인적인 불행감 뿐 만 아니라,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흔히 접하게 된다. 이런 환자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 지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다.

요즘 방송매체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누구나 충격을 받을 만한 외상을 경험한 후, 외상과 관련된 재경험을 하고, 외상과 관련된 상황을 회피하며, 감정적인 둔화, 각성이 증가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질환으로 적어도 이런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진단하게 된다. 처음 이 병을 기술한 것은 미국의 남북전쟁 때 전쟁에 참여한 병사가 보이는 심한 불안증세를 Da Costa라는 사람이 '병사의 심장(soldier's heart)' 이라고 기술하였고, 일차세계대전 때 'Shell shock(포탄 작렬에 의한 충격)', 그 외에도 유태인 집단 수용소 생존자의 수용증후군(concentration camp syndrome), 전쟁증후군(combat syndrome), 걸프전쟁으로 인한 Persian Gulf War Syndrome에 이르기 까지 많은 사람들이 외상의 경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군위안부들에서 보이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부터,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전쟁 후 장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대구지하철 사고, KAL기 폭파 사고, 아웅산 폭파사고 등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 이와 관련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정신과 진단 중 불안장애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최근에 발표된 DSM-5에서는 스트레스 관련장애로 따로 분류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한다. 그만큼 이 질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일반인구중 유병률이 1~3%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5~75%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어느 나이에서든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 장애에 취약성을 보인다고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나타나면 그 경과를 병을 앓는 기간이 1주일 정도로 짧은 경우에서부터 30년 이상의 오랜 고통을 받는 경우까지 다양한 경과를 보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초기의 적



극적인 대처가 병의 장기화를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진단하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의 생활의 혼란을 보이는 적응장애나 급성스트레스장애 등이 나타나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주된 증상은 실제적인 죽음이나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한 사건을 경험 한 후,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이러한 외상의 재경험, 외상이전에는 없었던 회피와 명한 증상, 과각성 등 3가지가 특징적인 증상이다. 외상의 재경험은 고통스럽고 침습적인 회상이 계속되거나 사건과 관련된 꿈을 반복해서 꾸거나,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외상을 상징하는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강한 심리적, 생리적 고통을 동반하는 것 중 한 가지 이상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회피와 명한 증상은(다음 중 3가지 이상을 동반) 외상과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 대화를 회피하고, 외상을 회상시키는 활동, 장소, 사람을 피하고, 외상 사건의 중요한 점을 기억하지 못하고, 중요한 활동에 흥미나 관심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진 느낌을 가지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등 정서적인 제한이 나타나고, 직업, 결혼 등 미래의 계획이나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 과각성은(다음 중 2가지 이상 동반) 잠을 들거나 유지가 되지 않고, 쉽게 흥분하거나 분노를 나타내고, 집중력의 어려움을 보이고, 과도한 각성상태를 보이거나, 조그만 자극에도 심하게 놀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애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우리 뇌의 구조는 思考를 관장하는 전전두엽, 감정이나 기억과 관련된 해마와 편도 등의 대뇌변연계,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HPA 축,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카테콜라민이 증가하여 심박동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내인성 오피오이드(엔돌핀)가 증가되고, HPA 축이 과활성화 되어 수면이나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기 쉬운 위험요소들을 살펴보면, 이전에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신과적 장애를 가졌던 사람, 사건에 대해 회피적인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사건을 경험할 때 감각적으로 멍해지거나 해리를 경험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외상을 직접 경험한 경우, 외상 강도가 심한 경우, 외상을 길게 경험한 경우, 더 가까이에서 경험한 경우, 스스로 위험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우, 외상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경우, 이전에 뇌를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 어린시절에 학대나 외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외상에 대해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위험성은 커진다.

위험에 처한 환자를 일차적으로 접하여 진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들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교육과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 당면한 슬픔을 잘 승화하여 우리 자신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며,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환자가 현재 안전하다는 점을 주지시킵니다.
2.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안정감을 찾아줍니다.
3. 현실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환자가 사건을 회상하며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환자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 환자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감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 환자 스스로가 자신을 조절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8. 이야기를 해나가는 동안 심리적 고통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이를 지지합니다.
9. 외상의 기억이나 감정반응, 신체반응 등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10. 불합리한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11. 급성스트레스 반응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12. 생물학적인 증상을 조절해 줍니다.
13. 외상에 대한 인지적인 오류에 대해 치료를 실시합니다.
14. 사회적인 관계나 대인관계를 재정립하는데 도와줍니다.
15. 정서반응을 재조정해 줍니다.
16. 자존감, 자신감, 자기효율성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재활치료를 실시합니다.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나 자살 사고와 자살 행동, 위협 등의 위험 임박 싸인을 보이는 환자는 즉시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약물치료와 입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위험에 처한 환자를 일차적으로 접하여 진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들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교육과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 당면한 슬픔을 잘 승화하여 우리 자신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며,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고, 2014. 4. 28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상실과 애도에 대한 정신건강 안내서' (세월호 사고 관련 정신건강 지침서)]

# (주) 휴브글로벌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



**우극현** 교수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장

## 1. 서론

2012년 9월 27일 오후 3시 43분경 (주)휴브글로벌이라는 불산 제조업체에서 불화수소 탱크로 리 운반차에 보관된 100% 불화수소(무수불산)를 저장 탱크로 옮기는 작업도중 불화수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대기 중으로 퍼져 나간 불화수소 가스는 인근 지역주역들과 공단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공장시설의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에 2012년 10월 8일 일부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단계 및 2단계 주민건강영향조사(2012. 10. 5 ~ 2013. 8. 31)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사고발생 7개월 이후에도 건강영향조사 참여 주민의 19.7%가 기침, 목안 및 안구통증,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건충격 수준은 감소하였으나, 불안수준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1987년 미국 텍사스의 불산 누출사고 2년 후의 추적결과에도 관련 증상이 지속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을 보였다. 2014년 3월 말부터 정밀검진 유소견자와 기침, 목안통증 등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영향을 최종 평가하고, 또 사건충격 및 불안수준이 높았던 대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심리적 지원을 통하여 사고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3단계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누출사고가 계기가 되어 2013년 5월 20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 환경부로부터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아 불화수소 등 각종 유해가스 노출과 건강영향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건강이상 유소견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라 전문가 그룹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매스컴이 가세하여 불산피담(?) 수준의 각종 루머들이 떠돌았고 세 분의 대선후보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치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복잡 미묘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 사고발생이후에도 전국 여러 곳에서 불산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의료인으로써 불화수소 및 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책임 맡아 수행하면서 얻은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 2. 불화수소의 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불화수소는 불산이라고도 불리며 분자식은 HF이고, 상온에서 자극취가 있는 무색의 발연성 액체로 물과 알코올에 잘 녹는다. 강한 부식성이 있어 백금, 금 이외의 금속을 침식하고 이때 수소를 발생시키며 또한 유리를 부식한다. 불화수소는 탄화불소의 합성, 휘발유 생산, 금속주물 공정과 용접, 로켓 원료, 금속도금 그리고 표면 고열처리 작업에 사용되고 있다. 가스형태 또는 입자형태의 불소는 모세기관지 이상의 부위에 축적되면 점막작용으로 인하여 상부로 배출되어 소화관으로 들어가 결국 위장관에 흡수되며 폐포에 축적되면 폐포에서 쉽게 흡수된다. 흡수된 불화수소는 소변으로 주로 배설되며 24시간 내에 60% 정도가 배설된다. 체내에 축적된 소량의 불소는 99%가 fluorapatite 형태로 뼈에서 발견된다. 불화수소는 증기의 흡입, 용액의 섭취, 용액과 증기에 의한 피부와 점막 접촉으로 장애를 일으킨다.

19.5°C 이상의 상온 하에서 기화된 불화수소가 공기 중의 수증기와 결합하여 흰 연기상태의 불산 미스트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눈과 호흡기를 광범위하게 자극하여 많은 량의 눈물과 목통증, 기침, 허부기도 염증, 폐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몇 시간 안에 발현될 수 있으며, 초기 노출 후 대부분 24시간 내에 나타난다. 불산은 피부에 침투하여 피하 조직에 손상을 주며 깊게 침투하여 고통스러운 궤양을 일으킨다. 피부의 병변은 불화수소의 농도와 작용시간에 따라 홍반성 부식, 수포성 부식, 괴사성 부식을 유발하며 계속되는 극심한 동통이 특징적이다. 불산이 체내에 흡수되면 수소양이온( $H_3O^+$ )과 불소음이온( $F^-$ )으로 분리되는데, 불소음이온( $F^-$ )이 불안정하여 혈중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과 결합함으로써 그 농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메시꺼움, 구토, 위 통증, 심부정맥 등의 전신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전해질 이상에 의한 대사적 후유증으로 저칼슘 & 저마그네슘혈증으로 인해 경련, 심근수축력 저하, 심혈관 기능저하가 올 수 있으며 고칼륨 혈증 때문에 심실세동이 와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20% 이하의 희석된 불산용액에 의해서는 며칠 정도 지연되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불소에 장기간 노출 되었을 경우 골격계와 그 관련조직에 변화를 초래한다. 1단계는 골불화증, 2단계에 걸쳐 3단계에서는 불구성 불화증으로 인한 운동장애가 올 수 있다. 그러나 고농도의 불소에 노출되어도 감지할 만한 초기의 뼈의 변화는 약 10년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이 걸린다. 불화화합물은 태반을 통과하지만 적은 량은 태아의 성장에 필요하며, 모유로는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생식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문헌은 없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 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긴급대응체계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국민보호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발생가능한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불산 가스를 흡입했을 경우의 응급처치**

- 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 후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 눕힌다.
- ② 즉시 의사에게 연락을 취한다.
- ③ 환자의 호흡이 멎었을 경우는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④ 되도록 빨리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 ⑤ 2.5% calcium gluconate의 분무용액을 공급해 주고 자극제는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해서는 안된다.
- ⑥ 환자는 24시간 이상은 의사의 관찰 하에 있어야 한다.

**3.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

우리가 사고당시의 CCTV 동영상을 통하여 생생하게 보았듯이 사업주와 관리자 및 근로자들이 사고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대응하여, 일어날 수도 없고 나서도 안 되는 대형 참사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긴급대피시 안전수칙은 전혀 무시된 채 구경꾼들처럼 행동하여 이번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가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음을 그대로 노출시킨 사건이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생활화 하며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다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온 국민이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고 배운 교훈이다.

또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시 구체적인 대응매뉴얼이 없고, 사고관련 주관기관이 모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민대피령 발동이 지연되었고 주민대피 해제 기준의 안전성 및 복귀절차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긴급상황에 대한 지휘체계가 상당히 미흡함을 보였다. 더구나 현장감이 없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와 마스크의 지나친 호도,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으며, 근거중심의 주장이 아닌 많은 루머들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사고유형별 또는 유사한 화학물질군별 전문가 풀을 가동하는 긴급대응체계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국민보호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발생가능한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Tax News

## 수입금액 누락과 가공경비에 대한 문제



고문세무사 **백재환**  
세무법인 누리

5월은 소득세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 되어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는 5월에 신고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신고 소득을 얼마로 하여야 적절할지? 나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지나 않을까?' 등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성실신고가 최선이겠지만 세법에 100% 적합한 완전한 성실신고는 쉽지 않습니다. 살다보면 사회현상과 법(세법)이 꼭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실제 물건을 구입했고 재래시장(서민 경제의 기초) 활성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처리가 어렵고 세법상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법 규정에 100% 정확히 맞는 성실신고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할 정도의 적절한 성실신고, 그 기준을 찾고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나?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고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성실신고를 택하여 편안한 납세가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세무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누락되는 경우와 가공경비를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병·의원은 모두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시고 세무조사는 5%미만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언론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일부 병의원의 특수한 경우임에도 고도의 성실성이 요구되다 보니 그런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고소득자영사업자라 하여 국세청에서 별도의 관리대상사업자로 분류되어 있고 가끔 세무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을 때의 제재조치(불이익)에 대한 관련 법규이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문 그대로 수록해 보겠습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

- 로 가입하여야 한다. (09. 12. 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09. 12. 31 개정)
  -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09. 12. 31 개정)
  -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1. 1 개정)
  -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09. 12. 31 개정)
  -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9. 12. 31 개정)
  -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12. 1. 1 신설)
  -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2. 1. 1 개정)
  -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1. 1 ⑧ → ⑨ 항 번호 개정)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09. 12. 31 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1. 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앞의 법규정을 요약해보면 병·의원 사업자의 경우 진료 건당 1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해당 거

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는 제외)에는 반드시(환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현  
 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  
 니다. 그리고 아래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이하생략)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과소신고분 과세표준}}{\text{과세표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1, 12, 31  
 개정)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 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 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3. 1. 1 개정)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이하생략)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1의 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13. 1. 1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 · 예정신고납부 · 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 4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2. 2. 2 개정)

가산세에 대하여 요약해보면 일반적인 과소 신고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병·의원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는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에 해당한다하여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1일 1만분의 3의 율은 연리10.95%로서 매우 높은 이자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8%의 최고 세율이 적용될 경우의 추정세율은 최소한 58%에 달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연도가 오래될수록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늘어나므로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 드렸던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징금을 더할 경우에는 진료비 수입의 100%이상을 추정 받게 됩니다. 매우 과중한 부담입니다.

다음은 가공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아니하면 경비 영수증이 부족하여 세금이 아주 많게 느껴지고 가공경비를 넣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래시장에서의 구입 등 정규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세를 내고나서 가사경비를 지출해야(먹고살아야)하는 세법 구조다 보니 실제 체감하는 세금은 아주 많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수입금액 중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가사경비를 지출하면(먹고 살면) 적자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저축금액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 세법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수입금액을 누락하든지 가공경비를 넣든지, 세금을 내는 과세소득을 적절히 조정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즉 과중한 가산세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제조치 때문입니다.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으로써 추가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최소한 50%이상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과소신고 가산세는 중과소에 해당하여 40% 적용) 그리고 문제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제조치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소명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가공경비에 대하여는 소명의 여지가 없고 무조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의 과소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다르지만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1년 이하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과중하므로 가공경비를 넣는 경우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귀속(2015년도 신고)부터는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니 가공경비 계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 고민이라 언급해 봤습니다.



# Work News

## 이것 모르면 앙 ~ 되요~~



고문노무사 장인호  
노무법인 남경

### 1. 이른바 'GROSS' 또는 'NET' ?

#### 가. 무슨말인가?

다수의 병·의원에서는 세금을 공제한 후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임금계약을 하는데 이때 세후 급여액을 'NET'라 하고 세전 총금액을 'GROSS'라 표현한다.

#### 나. 무엇이 문제인가?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월급여가 150만원인 간호(조무)사의 경우 통상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150만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월급여 150만원을 세후금액인 NET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은 세전금액인 약 165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근로자들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관할노동청에 추가지급을 요청하는 진정(고소)사건을 신청하고 있다.

#### 다. 'GROSS' 와 'NET' 의 비교

구 분	GROSS	NET
개 념	소득세 및 보험료 공제 전 금액	공제 후 금액
보험료부담주체	근로자 1/2, 사업주 1/2	사업주 모두 부담
장 점	경비공제액 증가	소득세 및 보험료 부담액 감소
단 점	퇴직금액 인상, 소득세 및 보험료 부담액 증가	경비공제액 감소

위 비교표를 살펴보면 NET로 임금을 산정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및 보험료부담액이 경감될 수 있으나 GROSS로 신고하는 경우 경비공제액이 많아진다. 현재 최고세율급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다수 병·의원의 경우 GROSS가 유리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소득세 및 보험료 부담액은 급여의 약 10%미만이지만(사용자부담분을 감안하면 20%미만) 최고세율은 현재 40%가 넘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자들도 세전금액인 GROSS로 산정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권리임을 알고 있다.

**라. 연말정산 후 환급금을 요구하는 근로자**

연말정산 후 근로자 본인명의로 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최근 잦다. 특히 NET로 계약한 사업주는 병원측에서 대신 부담하였으니 환급도 병원측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GROSS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병원측이 부담한 것은 근로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환급이 옳다.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으로는 GROSS로 계약하여, 환수 또는 환급금은 근로자 본인이 받거나 더 내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자.

**2. 퇴직금과 퇴직연금**

**가. 퇴직연금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

결론은 NO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 2012. 7. 26. 이후 신규 사업자는 반드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가입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 매년 중간정산하면 어떻게 되나?**

역시 법적제재는 없다. 다만, 사실적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가 100, 110, 120만원으로 인상된 경우 퇴사 시(중간정산이 금지되므로) 120만원 × 3년 = 36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 중간정산을 한 경우 330만원을 지급한 것이 되므로 퇴사 후 30만원에 대한 추가부담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퇴직연금 중 DC형에 가입하는 것이다.

**다. 퇴직연금 중 DB형과 DC형은 어떻게 다른가?**

간단히 말하면 DB형은 위 예에서 3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DC형은 중간정산의 효과를 가져오는 3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면 차액인 30만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DC형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가상계좌가 만들어지고 개인의 책임하에 운용수익으로 차액을 보전하게 하는 것이다.

**3. 정기상여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인가?**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기본급의 200%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분기별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 중에 한한다' 또는 '매월 지급하더라도 만근을 하지 않으면 비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출산 및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지원금을 챙기자**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월 60만원을 지원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추가로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물론, 감원방지기간(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 후 6개월 동안 해고 내지 권고사직 불가) 등 상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장미공원 가는 길



박 송 훈 과장  
경상북도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장미공원 입구의 못 독을 지나 비탈길을 오르면 산중턱 쉼터에 오동나무 한 그루, 금강초롱 닮은 꽃들이 가지 마디마다 묶음으로 피었습니다.

가시던 날, 제 뒤를 따라 나서던 여섯 살 민오의 키 높이만 했던 오동나무가, 당신이 살았던 신천(新川)의 옛집만큼이나 크게 자랐습니다. 오늘은 연푸른 꽃묶음으로 단장하고, 넓은 잎사귀를 흔들며 저를 맞이하는군요.

계시는 곳, 떡갈나무 사이를 걸으면 아카시아 꽃잎이 눈처럼 흩날립니다. 호젓한 휴일의 숲길에서 만나는 향기로운 꽃잎들은 흩이 되고 바람이 되고, 그리고 마음 속 추억이 되어, 어제 일처럼 가까이 때로는 먼 유년의 기억처럼, 함께 했던 시간은 오월의 장미공원 오솔길을 스쳐갑니다.

무덤가에 앉으니 문득 어릴 적 외갓집의 기억이 되살아나는군요. 오십 년도 더 지난 어느 봄날, 학교에서 갓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당신을 따라 검단동(劍丹洞) 버드나무 길을 걸어 금호강 모래둔덕의 징검다리를 건너갔지요. 도동(道洞) 측백나무 수림을 지나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가면 용바우골, 만나절을 걸어 지쳐버릴 즈음 왕버들 고목이 눈앞에 다가서는 환성산 아래의 평광동(坪廣洞) 작은 마을입니다.

외갓집 마루 앞에 펼쳐진 풍경. 싸리 담장 너머로 옥수수가 자라고, 하얀 밤꽃 내음이 무르익어가는 앞동산 떡갈나무 숲, 개울 건너편의 아카시아 향기는 사과밭 과수원에 멈추어 오수(午睡)에 잠기고, 팔베개 삼아 혼곤하게 잠든 마루에서 컵전을 스치는 뒷산 미루나무 숲의 바람소리, 기와지붕 너머로 하늘 마당을 지나는 구름 하나가 복사꽃 꿈속을 넘나들던 오월의 어느 날 오후, 전설처럼 속삭이는 옛 마을의 정취입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의 산길 십오 리, 구비마다 주막집을 들러 막걸리 몇 사발을 비우시던 당신의 모습. 초막(草幕)의 처마 끝에 걸린 희미한 초롱불 아래,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당신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지요. 개울 목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요란하고, 기다림에 지친 일곱 살 아이에게 밤하늘의 별들은 왜 그리 충충하고 외로운지요.

아이들은 혼자 있으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둠 속에서는... 아, 그리고 이후에는 당신을 따라 검단 금호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간간히 향수를 적시는 시골 한낮의 꿈같은 풍경이지만, 밤중의 산길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서는 늦은 봄날의 또 다른 기억입니다.

나이든 이후에, 당신이 가신 이후에는 점점 간격이 사라지고,  
 오늘 이리도 가까이 다가섬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워하는 이 모두가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언덕배기의 옛집으로 올라가는 길. 왼쪽에 가죽나무 두 그루, 오른쪽은 흙담장 사이로 뿌리 내린 대추나무  
 들이 집 앞 경사진 언덕의 그늘을 이루었지요. 그 그늘 아래 일주일에 한 번은 동생을 업고 대문까지의 길을  
 오르내리시던 당신의 모습, 군입대한 형을 위해 밥상의 맞은 편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시던 당신의 애뜻한 정  
 이 유난히도 지금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살아생전에 저와 나누었던 얘기가 하루 분량이나 될까요. 부자간의 정겨운 마음을 나누기나 했었는지요.  
 짧은 이야기 부분이나마 되살려 보려하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소나무 숲을 지나는 바람은  
 어렴풋한 풍경만을 전해준채, 추억의 장면 밖으로 매정하게 사라집니다.

인사드리고 내려가는 길, 오동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양병원 들르고 내친김에 홀로 와 여기에  
 앉으니, 마음조차 멀리 떠나간 아이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다시금 보고 싶어지는군요. 어찌 보면 장성한 자식  
 들에 대한 애증이 당신에 대한 푸념 섞인 어리광으로 이어지는 건지도 모르지요.

그래도 세월은 아픈 기억을 쓰다듬어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 줍니다. 먹지도 못하는 개가죽나무와 먹  
 을 것도 없는 산대추나무의 그늘, 무엇 하나 제대로 느끼고 가질 것을 받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한여름의 따가  
 운 햇살을 피할 수 있었던 당신의 그늘, 힘들고 외로운 일상의 뒤편에서 잠시나마 쉬고 땀을 닦고 싶었던 저  
 만의 포근하고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당신과 우리, 요즘의 세대와는 사뭇 다른 세대의 부자간, 형제간, 차남(次男)이라는 가깝고도 먼 거리였지  
 요. 그러나 나이든 이후에, 당신이 가신 이후에는 점점 간격이 사라지고, 오늘 이리도 가까이 다가섬을 예전  
 엔 미처 몰랐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워하는 이 모두가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장미 공원 한적한 못 독에 뉘시꾼들이 모여드는군요. 호수(湖水) 건너 남산(南山)의 마을을 향하는 아득한  
 과수원 길, 문득 잊었던 옛 노래가 살아나고 그날처럼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싶어집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가면서도 두렵지 않아, 어디서나 나지막이 당신의 노래  
 를 읊조리곤 합니다. 그것이 나이 때문인가요, 세월 때문인가요. 오월의 노래는 당신의 빈자리, 채울 수 없는  
 제 마음 속의 그리움인가요.



# 울릉도에 살으리겠다



손 경 식 원장  
울릉군보건의료원장



지난해 10월말 경인가보다, 실로 우연히 펼쳐본 일간지에 울릉도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 섬의 유일한 의료기관인 ‘울릉군보건의료원’에서 일할 의료원장을 구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약 5개월의 공백 기간 중 4차례나 청빙공고를 내었는데 아무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다섯 번 째의 공고에 두 사람이 지원하여 한 분을 선임하였지만 연봉이 적다고 지원포기를 하였다는 기사였다. 대한민국 의사 수가 11만 명이나 되는데 인구가 만 명이나 되고 한해 섬을 찾는 관광객 수가 40만 명이나 되는 울릉도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니... 내심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고 그때 마음속에 ‘그곳에 내가 가보지 않겠니?’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다. 지난 육십 여 년 동안 군의관 시절 삼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대구 땅을 떠나 본 적이 없는 대구도박이가 대구를 떠나 울릉도에 살아보란 말인가?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내가 젊은 의학도 시절에 때가 되어지면 의료선교사로 자신을 드러 봉사하겠다고 했던 서원이 생각났다. 그 사이 여건이 되지못하여 차일피일하면서 겨우 삼덕의료선교회를 통해서나 대구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을 조직하여 지난 10년간 십 여 차례 해외단기 의료봉사를 다녀오긴 하였지만 그것으로만 풀리지 아니하는 가슴의 웅어리가 있어 왔지 아니한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갚아야 하는 것인데 이 나이에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우간다나 잠비아에 무작정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캄보디아나 태국 치앙마이에 진출해보려는 계획도

여의치 않았고 이 차제에 언어를 배우느라 2~3년 시간을 허송할 필요가 없는 우리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의료의 소외지역인 또 다른 신비의 섬나라-우산국에 가서 봉사하는 맘으로 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역임하고 전전임 의료원장으로 수고한 정만진 원장에게 전화하여 그곳에 가서 일하면 어떻게 문의한바 적극 찬동하고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이 가서 일하면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주었다. 힘을 얻어 내가 지원해서 그대로 받아드려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에 어렵게 아내의 동의를 얻고 급히 지원서류를 만들어 보내었다. 이번 기회에는 4분이 지원을 하여 엄격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가 선임이 되었다는 통고를 받았다. 그 후 2주간 안에 복잡다단한 4급 공무원(서기관급) 임용에 관계된 신원조회 등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주변을 정리하여 울릉도로 갈 준비를 마쳤다. 포항에서 배를 타고 4시간 이상을 가는 동안 심한 풍랑에 극심한 배 멀미로 호된 신고식으로 치르고 드디어 도동 항구에 도착하였다. 10년전 홍보출판부 부장으로 섬길 때 20여명의 부원들과 함께 울릉도 동광교회에서 3박 4일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 방문 한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찾은 울릉도는 여객선 터미널도 새로 생기고 일주도로도 정비되어 여러 면에서 변모하고 있었다.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고 오징어 내장탕으로 속을 풀고 보건의료원 청사 곁에 있는 15평 남짓의 관사에 짐을 풀고 나서 나의 울릉도 생활이 시작되었다.

보건의료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말쑥한 건물에 22명의 공중보건 전문의를 포함하여 1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도합 60병상을 갖추고 있었고, 기본적인 병원급 업무와 요양병원 업무를 비롯하여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지역사회를 향한 건강증진사업과 예방활동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술을 위한 응급핵심 진료인원과 시설장비가 부족하고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바라는 주민의 욕구로 그때마다 응급후송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부임 후 짧은 시간동안에 급성 충수염, 담낭염, 복합골절과 뇌경색, 경추질환으로 인한 사지마비환자 등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하여 응급 헬기를 띄우고 해군함정을 이용하여 십 여 차례 후송을 보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러나 그분들이 포항, 강릉, 서울 등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거나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 감사를 표할 때는 그간의 힘든 기억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생명을 구했다는 기쁨이 가슴을 뿌듯하게 한다. 그냥 외상의 환자들을 돌보거나 단순한 외래 환자분들에게 약을 처방해드리는 진료보다는 느낌이 다른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비교적 순박하고 인심이 후한 섬나라 울릉도 사람들과 동화되어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돌보며 그분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면 나의 남은 생은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변화무쌍한 날씨에 끝도 없이 내리는 눈, 그리고 긴긴 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울릉도만이 가질 수 있는 맛있고 멋이라고 생각하니 견딜 만 하였다. 하나님 은혜로 도동제일교회에 잘 정착하였고 새벽기도도 곁에서 다니고 마침 삼덕교회 만남수련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조과장님 부부를 만나 함께 삶을 나누며 감사하게 지내고 있다. 주말에 응급한 환자가 없으면 도동-저동 해안길이나 내수전 길을 걸어 보기도하고 북면의 거센 바닷길을 거쳐 나리분지의 설경에 잠기기도 해보고 현포항이나 태하령의 절경을 보며 울릉도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다. 얼마전 한국인의 밥상-울릉도편을 보면서 이곳사람들이 먹는 웰빙음식인 오징어 내장탕이나 감자옥수수밥, 따개비칼국수, 전호나물이나 명이 나물 등이 사실은 이 척박한 땅을 살아온 이 땅의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자 삶의 지혜였음을 깨닫는다. 또한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왜 독도는 우리 땅이며 왜 일본해가 아니고 동해가 되어야하는지 알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올바른 역사관을 지닌 애국자로 서서히 거듭나는 중이다.

비교적 순박하고 인심이 후한 섬나라 울릉도 사람들과 동화되어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돌보며 그분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면 나의 남은 생은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힘든 3개월의 겨울을 무난하게 견디어 내었더니 이제 정말 아름다운 울릉도의 봄날이 와서 앞으로 3년 정도는 거뜰히 힘차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전문의가 되어 대구 땅에 개원하여 많은 세월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난 삼십 여년의 세월을 살아온 대구를 떠나 경상북도 관할의 이 섬에 왔기에 어쩔 수 없이 자주 나갈 수 없어 만나고픈 분들을 자주 만날 수 없고 함께 섬기려고 만들어 온 대구시의사회 의료봉사단에 불충하게 됨이 좀 아쉽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울릉군의회사회장으로 선임되어 22명의 공보의들과 함께 남은 3년 이상의 임기를 보다 낙후된 열악한 땅 울릉도에서 섬기도록 되었으니 이것도 나의 부름이요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려고 마음먹고 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동쪽 끝 땅인 외로운 섬에서 산다고 여기시고 가끔 생각이 나시면 전화나 카톡도 좋고 기회가 되시면 방문도 해주셔서 부족한 사람이 울릉도에 살면서 보람되고 아름다운 제 3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면 더욱 기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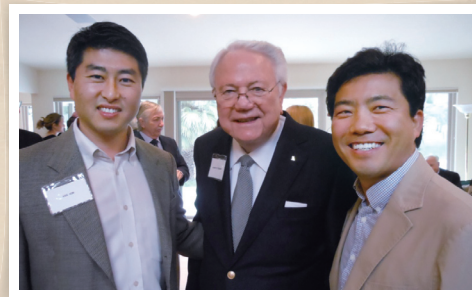
# UC DAVIS Medical Center 연수기



권희대 부원장  
에스포항병원 척추센터장

저는 포항에 있는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는 권희대 입니다. 의사 일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가치 있는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 보면 우리 선배 의사 분들은 첫째는 군의관 시절이고 두번째는 가능하다면 외국 연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군의관 시절을 첫 번째로 꼽는 이유는 군의관은 거의 모든 남자의사는 거쳐야 할 관문이고 갖춰야 할 가정을 꾸리기 시작 하는 시기이기에 모든 것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해외 연수의 경우는 대개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다녀 오셨고 평생의 자랑으로 늘 이야기 하시는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조그만 병원에 근무하면서 꿈 같은 해외 연수의 기회를 얻었는데 막상 얻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이 아닌 한반도의 동단 도시인 '포항'에서 에스포항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얼굴도 모르지만 저널에서 메일주소를 얻어 외국대학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몇 군데에서 긍정적인 답을 보내 주셨고 가족, 교실과 상의 후 최종으로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Medical Center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CD)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동쪽에 위치한 데이비스에 있지만 병원은 주도가 있는 새크라멘토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 대구가 고향이고 신경외과에서 근무하시는 Kee D. Kim 교수의 초청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흔히 연수를 가지 않는 곳이라 생소하기도 했지만 학회 내에서 평판, 초청교수님의 인지도, 생활 여건 특히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결정을 하였고 지난 2011년 8월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후 일년 동안 UCD 신경외과학 교실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연수 전에는 UC D 신경외과학 교실은 잘 몰랐지만 연수 기간 중 기부금 파티에서 신경외과학 교과서의 저자이신 Youmans 교수님을 소개 받았습니다. UC D 신경외과학 교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신경외과학 교과서인 YOUMANS Neurlogical Surgery의 저자 이신 Youmans 교수님이 1980년에 세운 교실이었습니다. 이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UC DAVIS 신경외과학 교실은 미국에서 US News 조사에서



▲ Youmans 교수 기부금 환영 파티  
오른쪽은 저자, 가운데는 Dr Youmans, 왼쪽은 Kee D. Kim

의료,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시야도 넓어진 것을 느꼈으며,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 있지만 1년간의 연수는 도전해 불만하고 나 자신, 가족 모두에게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EST HOSPITAL 로 선정되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곳입니다. Youmans 교수님은 이제는 퇴직하시고 많은 돈을 교실에 기부하시어 교실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계신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Kee D. Kim 교수님은 척추센터 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직원들의 신망을 온몸으로 받고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 병원, 일

병원은 UC 산하의 병원 이었고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에 위치하였다. 첫 인상은 광활한 대지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병원 건물을 익히는데 여러 주일이 소요 되었다. 질환에 따라서 각각의 건물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동할 때 셔틀을 타야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부에 의해서 지어진 병원 건물이 많았다는 것이다. 오라클 회장인 엘리스 CEO가 발목 골절로 정형외과에서 치료한 후 퇴원하면서 기부한 돈으로 병원 본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병원은 본관 14층 전방이 가장 좋은 곳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외과 자체의 컨퍼런스도 정기적으로 있었지만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외래는 별도의 건물에서 환자를 보는데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가 같은 층에 있었고 가운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외래방이 있어서 환자는 각방에서 대기하고 있고 환자 대신에 의사가 순환을 하면서 환자를 진찰하고 공용방에 와서 상의하는 시스템이었다. 외래에서도 과 간에 상의, 토론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원내에서는 각 과에서 월1회 전국의 유명의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GRAND ROUND' 가 있어서 최신지견의 교환,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우리 에스포항병원도 귀국 후 이를 본받아 Stroke and Spine Grand Conference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척추 수술은 Degenerative spine disease, Scoliosis, Deformity 등에 대한 수술이 있었고 최신의 술기를 볼 수 있었다. 보통의 경우 연수를 가게 되면 수술에는 직접 참여 하지 못하고 observation만 할 수 있는데, 집도의의 배려. 환자의 동의 후에 수술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한번은 흉추(thoracic)디스크에 대한 수술을 했는데 첨단 장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곳(wrong level) 을 수술한 경우가 발생 했었는데 이후에 환자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다시 재수술을 시행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환자 설명에 많은 시

간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환자에게 설명을 잘해주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차이가 없었다. 수술실은 많아서 하루에 많아야 한방에서 23 건의 수술만 진행하고 있었다.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의 안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배울 점이 많았다. 병원에 운영은 체계적이었



고 기구는 풍부(?)했다. 수술실 복도에 다빈치 로봇이 3대 있었고 (3대가 한꺼번에 사용된 적은 1년 동안에 없었던 것 같았다), 신경외과에서 사용하는 고가 장비인 오암(O-arm)을 미리 예약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였다. 단 오암 담당 엔지니어만 휴가가 아니라면. 신경외과 수술방마다 최신, 최고 사양의 수술 현미경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현미경을 전담하는 엔지니어도 상주 하였다. 이 처럼 약간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각자가 철저히 자기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런 컨퍼런스, 수술, 학회 참가를 하면서 1년 동안의 연수기간 동안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 전반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았다.

## 가족

병원은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에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생활 여건, 학교 등을 고려하여 이곳에서 차로 15분 떨어진 데이비스에서 생활하였다. '데이비스'라는 도시는 UCD가 있는 캠퍼스 타운이어서 안전하고 좋은 도시였다. 데이비스는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 사이에 위치한다. UCD는 수의학, 포도주, 농업에 관련해서는 세계 유수의 대학이었고 그래서 전세계에서 온 교수, 학생이 많았다. 또한 한국에서 연수 온 교수님, post- Doc, 학부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인구의 대부분이 대학에서 근무하거나 대학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어서 도시가 젊고 활기차면서도 교육적이고 무엇보다도 안전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고 학교 교육이 좋다고 소문난(?) 도시였다. 첫째 딸은 처음 보는 라크로스를 일년이나 외국 아이들과 어울려 열심히 했다. 물론 도시를 읍기면서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주말마다 각종 행사가 있었고 많이 참석해서 기부도 하고 즐기기도 하였다. 옆 집에 연수 온 브라질 교수와도 온 가족이 여행도 같이 다니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캘리포니아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데이비스가 안성마춤이다. 와인 산지로 유명한 나파벨리가 4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지척에 있다. 가볍게 와이너리 투어도 갈수 있고 럭셔리 와인 투어도 즐길 수 있다. 아니면 마트에서도 양질의 와인을 싼값에 구해서 마실 수도 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연수 기간 동안 '더 많은 와인을 마셔볼 걸'하는 미련도 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차로 2시간 정도 가면 레이크 타호(Lake Tahoe)가 있어서 일 년에 5개월 정도 스키를 만끽할 수도 있었다. 특히 동계 올림픽 Squaw Valley Ski Resort에서 즐겼던 깨끗하고 폭신한 자연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또한 해양 스포츠를 좋아하면 1시간 반이면 Bay area에 도착할 수 있다. 연수는 어쨌든 가족, 특히 아이들 모두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 인생은 진행형

아직도 지난 1년간의 연수생활이 생생합니다. 속된말로 말해서 연수는 남는 장사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료,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시야도 넓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 있지만 1년간의 연수는 도전해 볼만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가족 모두에게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호공제 및 의료배상공제 가입안내



■ 가입개시 : 2013. 11. 26 ~ (수시가입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2종류의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호공제의 특징

공제조합은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처리 및 피해보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2013년 11월 26일 공제조합이 발족되었습니다. 상호공제는 공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을 도와주는 "상호부조" 성격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입조합원을 모집하여 보상의 재원을 마련하고 가입조합원의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아래의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면책금(자기부담금) : 없음
- 보상한도액 : 최대 1천만원
  -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공제조합직원이 사건조사 및 합의중재를 도와드리며 회원이 환자측과 합의 후 공제조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보상 (선 합의 후 보상 시스템)
  - 실손보상은 아니지만 면책금(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소액 보상에 유리함

## 의료배상공제란?

- 의료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진자의 신체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피공제자(가입조합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보험성)
- 공제조합이 사업을 총괄 운영하며, 고액위험을 안정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와 업무제휴
- 다년간 전문경험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 및 보상금액의 현실화로 합리적인 합의 / 보상 지원
  - 타보험사와 차별화된 운영으로 합의율이 높으며, 합의가 안되는 경우 공제조합에서 민사소송 대행
  - 민사소송의 경우 법적 판결금 및 변호사비용, 성공보수 지원
  - 이를 통한 회원 권익보호, 합리적인 피해보상, 안정적 진료환경 구현
  - 서울본부 및 주요 지역별로 공제조합 지역본부 설치하여 신속한 사건처리 및 합의 중재 지원
- 가입안내
  - 가입대상 : 의원급(30병상 미만의 개원의 및 봉직의) → 개인 가입, 병원급(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 병원단위 가입
  - 보상한도액 :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면책금 :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 가입기간 : 수시가입 가능 → 공제료를 입금한 익일 0시부터 1년간 가입유효
  - 특별약관(선택) : ①경호비용, ②관습상비용 ③벌금, ④형사방어비용, ⑤초빙/마취의담보
  - 복수가입 할인 : 3인 이상의 피공제자가 연간 총보상한도액을 공유하는 경우 할인가능(15%~35%)
  - 타보험 가입조합원(전환가입시) 혜택 ▶ 공제로 할인 : 타보험 가입기간 중 무사고시 공제로 할인  
▶ 소급담보일 인정 : 타보험 최초가입일(소급담보일)을 인정해 줌 → 의료사고분쟁 연장 가능성에 대한 염려 해결

## 의료배상공제 가입문의

- 절차 : 가입문의 → 공제로 안내 → 신청서 작성(Fax접수) → 공제로 납부 → 증권발송
- 문의 : ☎1899-0059 / Fax 02-6234-1346, 795-1346
- 사건처리 절차



### 가입문의 및 사건담당

- 공제조합 본부
  -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관할]
  - [150-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59 (신길동)
  - ☎ 1899-0059 / FAX 02-6234-1346, 795-1346

### 납부방법

- 은행(계좌) : SC제일 327-10-016923
- 예금주 : (사)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 지역 본부

- 부산[부산] ☎051-464-9568
- 대구[대구/경북] ☎053-941-7102
- 경남[경남/울산] ☎055-240-6228
- 광주[광주/전남] ☎062-525-8601
- 전북출장소[전북] ☎070-8808-6544
- 대전[대전/충남/충북] ☎042-256-4589

**KMA**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 대한의사협회 제34차 종합학술대회

## 대한민국 의학 EXPO 2014

의료계 최대의 학술제전인 종합학술대회는 그 동안 우리나라 의학의 발전과 상호 교류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앞서 '고령사회와 미래의학'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역할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이번 대회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한 의료계의 역할을 제고하여 참가자 모두와 공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종합학술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회개요

대회명	대한의사협회 제34차 종합학술대회 대한민국 의학 EXPO 2014
일시	2014년 6월 27일 (금) - 6월 29일 (일)
대주제	고령사회와 미래의학
슬로건	100세 KOREA
형태	국내대회 국제학술대회
장소	코엑스
주최	KMA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주관	제34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 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 기간** 2014년 2월 10일 (월) - 5월 23일 (금)
- 등록비** 무료 (일부 프로그램 제외)  
\*현장 등록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사전 등록을 권장합니다.  
[www.kmacongress.org](http://www.kmacongress.org)
- 사전등록 필수 프로그램**  
· 세계적 임상 연구를 향하여 · 청소년 과학캠프 · Hands-on Workshop
- 평점 안내**  
대회 참석 시 최대 18점 (1일 6점)의 평점이 부여 됩니다.  
(1일 당 오전 / 오후 각각 3점의 평점 부여)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회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회 일자 별 주제

- 6월 27일 (금) 미래의료, 어디로 갈 것인가? Future Medicine, Where should we go?**  
미래사회, 미래의료를 전망하며 핵심 사안인 고령사회를 주도할 의료계가 고민해야하는 정책 방향과 변화를 제시하기 위한 주제로 구성
- 6월 28일 (토) 2018, 고령사회를 극복한다. 2018, Challenges of Medicine in an Aged Society**  
고령사회의 주된 이슈인 장수, 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노인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노인중후군, 심혈관 질환, 치매, 근골격계 질환, 노인 실금 등을 극복하기 위한 다학제 프로그램으로 구성
- 6월 29일 (일) 의료, 현장에서 준비한다. Continuing Education of Chronic Diseases in an Aged Society**  
국민 건강의 일선을 담당하는 개원의가 고령사회에서 흔히 접하는 만성질환 관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 대회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ongress Lecture ★

- 미래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 Future directions for improving health care for older people
- 의료, 미래를 논하다 (가제)
- 의학과 진화생물학의 통섭 - 히포크라테스와 다윈의 만남

#### Young Doctor Forum

- 세계적 임상연구를 향하여  
I: Becoming a successful principal investigator  
II: 한국에서 성공적인 임상연구 수행하기
- 타분야 의료인과의 만남
- Meet the Outstanding Scholars

#### 기타 학술 프로그램

- Refresh Course
- 의료와 사회, 의학과 미디어 ★
- 김난도 특강 ★
- 개원의 협의회 프로그램
- 기초의학 학술대회
- 의과대학 진학 심포지엄 ★
- 통일의료 한국 심포지엄 ★
- 해외 의료 봉사, 사회봉사 심포지엄 ★

#### Main Symposium

- 6월 27일 (금)**
  - 미래의료 메가트렌드
  - How to enhance synergy from bench to bed
  - 제약 산업! 미래의 전략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 고령시대의 Care Coordination
  - 이슈토론: 인구 고령화는 의료에 재앙인가, 기회인가?
  - 고령화 사회에서 가치관의 변화와 의료자원 분배 윤리
  - 행복한 시니어
- 6월 28일 (토)**
  - Aging, 극복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 건강한 뼈와 튼튼한 근육
  - 백세 장수 시대를 위한 노인평가의 실제
  - 노인질환의 새로운 개념 - 노인 중후군
  -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
  - 심혈관계 진료 지침의 현재와 미래
  - 노화와 혈압 - 시사점과 해결책
  - 노인 실금 확실히 알아보자 I, II, III
- 6월 29일 (일)**
  - 노인의 안, 이비인후과 질환 (노안과 청력 관리)
  - 시간의 침식 - 우리 몸의 변화
  - 줄기세포의 올바른 임상적용 I, II

#### Mini Symposium

- 새로운 유전체 의학 시대를 맞이하여
- 고령화 시대, 관절염 시대
- Molecular Theragnosis

#### 이벤트 및 체험 프로그램

- 의인사진미술 전람회
- 생명 살리기 체험과 생명존중 캠페인 ★
- 뇌건강 체험관 ★
- 고령친화종합체험관 ★
- Hands-on Workshop
- 대국민 강좌 ★
- 환우와 함께하는 나눔 콘서트 2014 ★
- 제1회 대한의사협회 UCC & 단편 필름 페스티벌 ★
- 영어논문 경시대회
- 청소년 과학캠프 ★

★ 일반인 참여 가능 프로그램

“최초의 발을 딛다!”  
**Statin**을 포함한 ARB



- One Pill, Statin을 포함한 ARB · 3상 임상을 통한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
- Powerful Irbesartan, Proven Atorvastatin(CV risk management 1차 치료제)

■ 성분 : 150/10(이르베사르탄15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10mg), 150/20(이르베사르탄15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20mg) ■ 용법용량 : 성인에 한하여 투여하며 투여용량은 이르베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각 성분의 효과 및 내약성에 근거하여 각 환자에서 개별화되어야 함. 1차제안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효능효과 : 본태성고혈압,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자의 신장관 치료, 심근경색증, 외출증, 혈관 재생술 및 만성 안정형 협심증 등에 대한 위험성 감소  
 ■ 제품문의 : 080-916-9000(소비자상담실)

